



4면

"변화·혁신으로 플레그십대학 실천"

# 전주매일

2024년 2월 29일 목요일 (음 1월 20일) 제345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쾌거'

익산·남원·완주·무주 등  
전북 5개 시군 최종 선정  
지역 책임 돌봄시스템 구축  
지역주도 공교육 혁신 등  
4대 전략 10대 과제 추진



28일 전북특별자치도청 브리핑룸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서거석 교육감, 정현을 익산시장, 최경식 남원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지정 공모사업 선정과 관련된 브리핑을 가진 뒤, 맞손을 잡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북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교육부 주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공모'에 신청한 결과, 최종 시범지역으로 도와 익산시, 남원시, 완주군, 무주군, 부안군 등 5개 시군이 모두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이 서로 협력해 공교육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으로 지역발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국 15개 시도, 94개 기초지자체가 신청했다.

이에 따르면 도교육청과 전북자치도는 익산, 남원, 완주, 무주, 부안 등 5개 시군과 함께 '버들고 싶은 글로벌 생명경제 교육도시,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비전으로 지난 8일 공모를 신청했다.

양 기관은 전북의 청년인구 유출방지 및 지역소멸위기의 해법은 교육에 있다고 보고 관계기관과 교육발전특구 지역협력체를 구성했다. 이후 각 시군 지역의 여건에 맞는 특구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공청회 등을 진행했다.

교육발전특구 사업에는 △지역 책임 돌봄시스템 구축 △지역주도 공

교육혁신 △지역 정주형 전문인력 양성 △지역 교육 국제화 등 4대 추진전략을 목표로 10대 세부과제가 담겼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북형 유보통합 기반 마련 △지역특성에 맞는 늘봄학교 운영 △디지털 교육혁신 △공교육 혁신을 위한 자율적 학교모델 구현 △지역 전략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지방대학 의·치·한·약·간호 등 지역인재전형 확대 △지역-대학 협력사업 지원 및 지역산업 연계 일자리 창출 △국제화 인프라 확충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확대 △다문화 학생

지원 등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교육이 당면한 학령인구 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 지자체, 기업, 지역사회가 협력해야 한다"면서 "1차 선정된 지역에 예산 지원과 특례발급 지원 등으로 전북으로 찾아오는 교육, 전북교육을 한국의 중심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북 교육발전특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모델로 자리잡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도지사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

리카 속담처럼 지역의 여건에 맞는 교육 발전모델 발굴을 위해 도와 시·군, 교육청과 대학, 기업 등 지역 주체들이 뜻을 같이하고, 서로가 연대하고 힘을 모으면 이겨낼 수 있다는 연대의 힘을 보여준 최고의 성과"라며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의 인재를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1차 공모에 선정된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통해 사업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3년간 시범지역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 새만금 SOC 조기구축 해법은 부동산 토큰증권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美 아스펜리조트 사례 들어  
"지분 일부 토큰증권 발행 두달만에 목표 투자자금 확보"  
디지털자산화특구 조성, 새만금 기본계획 반영 주장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이슈브리핑 '블록체인 기반 금융기법으로 새만금 개발 가속화'를 통해서 새만금 SOC 조기 구축 및 민간 부동산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디지털자산화특구' 조성이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새만금 디지털자산화특구'의 핵심은 새만금 부동산 대상 디지털화한 '토큰증권'을 소액투자자나 국내외 투자기관에게 발행해 새만금 개발이익을 다수에게 제공하고, 개발하는 '토큰증권' 판매 대금으로 초기 개발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점이다.

'토큰증권'이란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투자 단위가 큰 자산을 분할하여 소액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전통금융시장에서 투자하기 어려웠던 미술품, 저작권, 부동산 등에 적용할 수 있어 시장성이 매우 큰 금융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토큰증권 법제화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피스, 호텔 및 리조트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토큰증권을 발행해 개발자들이 초기 자금을 조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아스펜 리조트는 지분 19%를 토큰증권으로 발행하여 2개월만에 운영에 필요한 자금 약 1,800만달러를 조달했다.

부산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토큰을 일반인에게 판매하고 개인간 거래도 할 수 있는 실증사업을 추

진하고 있다. 새만금 디지털자산화특구 내에서 토큰증권을 적용할 수 있는 자산 유형은 부동산 소유권, 개발프로젝트 수익권, 개발 대출 채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자산을 토큰증권으로 거래할 경우 투자자들이 얻는 수익 규모는 토큰증권 가격 상승에 따른 매각수익과 부동산 자산의 임대나 운영 수익을 기반으로 하는 배당 수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연구진은 새만금 디지털자산화특구 추진을 위해서는 투자자에게 토큰증권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이나 새만금개발공사가 토큰증권 발행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테마파크와 컨벤션센터 등 대규모 민간 SOC 시설들을 선도적으로 토큰증권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KOSPI와 같이 가칭 '새만금 부동산지수'(S-DRESTPI: Saemangeum Digital Real Estate Security Token Price Index)를 만들어 투자자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해 투자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책임 맡은 김시백 책임연구원은 "새만금 개발에 토큰증권을 적용할 경우 다양한 부동산 자산 관리의 증권화로 소액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대규모 개발사업의 초기 개발자금 확보로 새만금 개발 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며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훈 기자

## 도내 모든 계층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전북자치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 강화... 무료 법률상담 시행

전북자치도는 최근 전세사기와 역전세 현상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계층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피해자 지원책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청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023년도에 신규 시행한 전세보증금 반환보

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올해부터는 모든 저소득층으로 확대해 3,300여 가구에 총 10억원을 지원한다.

소득요건은 청년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로 하고 그 외 대상은 6,000만원 이하이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서울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가구량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전북자치도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해 피해자 결정 신청·접수 및 상담과 함께 도 법무행정과의 희망법률상담(☎063-280-2847)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도 시행하고 있으며, 전세 계약 시 유의사항 등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배포해 계약 단계별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전세계약 시 주요 유의사항으로는 △계약 전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

적정 시세확인,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계약 시 임대인(대리인) 신분,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계약 후 주택임대차 신고와 전입신고, 권리관계 변동 확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등이 있다.

김광수 건설교통국장은 "도내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세피해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전세사기 예방 홍보를 강화하여 도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3·1절 관개로 3월 3일까지 신문 쉽니다.



#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

전주매일 캠페인